

사설

참회하자! 국가경제

국가가 부도났다. 당면한 금융위기를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멕시코, 타이, 인도네시아처럼 강대국의 경제신탁통치를 받게된 셈이다. 자존심이 상하고 허탈할 뿐이다. 이제 세계 무역규모 11위, 국민총생산 세계 12위라는 자만심을 과감히 버려야 할 때다.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산업에서 일본과 경쟁하던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모든 경제주체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반성과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우선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문민정부의 경제성적은 결국 과락을 받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큰 원인을 '정치지도력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쓰러지고 금융위기가 닥쳐오는 데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뚜렷한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무능을 보였다. 정경유착으로 두번씩이나 피어난 부정부패 왜곡된 금융구조를 탄생시켰다.

국가가 법정관리(?)에 처하는 꼴을 당해도 정치인들은 대권싸움으로 날을 지새우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금융개혁방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채 대책없이 연기했다. 이 와중에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직원들이 집단행동을 해 대통령 이하 전 각료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파탄경제로 마감하려는 현정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난국을 초래한 책임은 정부에 이어 기업들에 있다. 한보사태, 기사사태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30대 재벌그룹 중에서 8개가 법정관리 또는 회의를치에 들어갔다. 그동안 재벌들은 두번씩이나 차입경쟁과 비효율

적인 문어발 경영으로 부실과 파탄을 자초했다. 정경유착의 온상속에서 치열한 국제경쟁력을 이겨낼 강한 체질을 만들어 낼 수 없었다.

이제 기업들은 투자지출의 억제에 불가피해졌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에 수습을 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고부자·고성장 관직중으로부터 벗어나 균형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군살빼기와 홀로서기의 기를 마련할 시기이다.

여기에는 엄청난 진통과 추유증이 예상된다. 투자축소는 결국 소득과 소비의 감축으로 이어져 저성장과 실업 증대를 가져와 사회적 불안이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제도와 관행, 의식을 세워야 한다.

해방이후 우리 역사상 최대의 국난에 처한 현실을 깨닫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이제 총체적 국가위기에 처해버린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의 의식을 바꾸고 우리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자. 국민·기업·정부가 동체대비의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살려야 한다. 호화로운 해외여행이나 사치낭비는 금물이다. 불교에서도 지난 11월24일 종단협의회장 월주스님이 담회문을 통해 근검절약으로 수련에 빠진 우리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각계각층의 사회운동단체들이 이러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잠재력이 있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역사적 교훈을 다시한번 생각하자.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허리를 졸라매자.

군승단 自淨 움직임

비리의혹 법사 종단에 조사 의뢰키로 단장에 이희용법사...재정감사제 검토

일부 군법사의 불사비리 의혹으로 내용을 겪어온 군승단이 결산총회를 계기로 정화에 나섰다. 군승단은 11월 26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1백여명의 군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이희용법사(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종명)를 제24대 단장으로 선출했다. <관련인터뷰 3면>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불사비리 의혹 관련 법사 4명에 대해 종단 및 군수사기관에 조사요청 의뢰 △진급 및 장기근무 연장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군승단내에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 △군법당 재정감사제 실시를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결의는 지난 9월 '군승단을 걱정하는 후배법사 일동' 명의로 운영위원들에게 보낸 건의서에 대한 조치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위관급 법사들의 자정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관급 법사들

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회의 한 적이 많지 않았다"며 "오늘 회의같이 종교와 직업을 자유롭게 교환한다면 군승단의 정화는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서 작성에 참여한 또다른

법사는 "우리가 건의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가 없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동안거스님들 대선 동참한다"

11~13일 부재자투표

제15대 대통령선거가 11월 26일 후보등록에 이어 주요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동안거 결재에 들어간 경복문경 불암사 태고선원과 해인사, 용주사를 비롯한 전국

의 주요 선원은 24일 부재자투표 신청을 마치고 오는 11~13일 사이 인근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로 주권을 행사한다. 올해 동안거 결재에 들어간 수좌들은 2천여명에 이른다.



"포교사고시"

◇조계종 제3회 포교사고시가 6백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11월23일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합격자는 이달 중순 출신 불교대학에 통보한다. 사진은 서울 동국대 고사장 모습.

"사찰환경특별법 제정하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술세미나서 제기

사찰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찰환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환경오염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교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한국자문화재재단'의 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불자회(회장 김용택)가 11월28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불교문화재와 환경' 학술대회에서 홍광표교수(동국대 조경학과)는 "사찰환경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구상 입안부터 관련 사할 및 불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발·환경오염 '무방비' "자연문화재단 검토"

홍교수는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의 생태적 수용능력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환경보전 지향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의 방제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의 강화 △환경오염방지 투자율 제고 △처리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법인교수(밀양산단대 환경공학과)는 "환경오염과 불교문화재"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교문화재의 피해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영국의 National Trust 같은 한국자문화재단이 태동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피해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도 필요하지만 단순한 환경오염 피해만을 살펴보다가는 전통 사찰환경의 보존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길용교수(동국대 고고미술학과)는 '경주 불교문화재의 훼손과 보존대책'에서 "경주의 불교문화재는 전라어나 자연재해는 물론 경각지나 민묘설치, 탁본, 실화(失火) 심지어 복원에 의한 훼손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존대책으로 △재원의 확보 △인형복원 △보존각 설치 등을 들었다.

윤기석 기자

연꽃마을 노인병원 2곳 연내개원

안양·수원에...무료진료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11월 22일 개원한 안양시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병원을 개설하고 12월부터 의료서비스를 실시한다. 안양경로병원은 1백30평규모로 최신의료장비를 갖추고 지역노인들에게 무료로 의료복지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꽃마을은 12월중에도 수원에 수원광명위원회를 개원한다. 대한노인회 수원지부의 요청으로 사무실내에 개원되는 이번 수원광명위원원은 9번째 노인무료병원이다. 한편 인천지역 노인단체들은 새로 건립되는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병원을 개원해달라는 요청서를 연꽃마을에 전달했다.

보문종 명오스님 입적



보문종 원로원장 명오스님(사진)이 세수 82세(법랍 70세)를 일기로 11월26일 보문사에서 입적했다. 영결식은 11월28일 서울 보문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명오스님은 1916년 경기도 양주에서 12세에 보문사로 입산 출가해 재단법인 대한불교 보문원 이사를 거쳐 1986년부터 이 사장을 맡아왔다.

보광사 화담스님 입적



경기도 마석 보광사 주지 화담스님(사진)이 11월22일 오전 3시 입적했다. 영결식과 대비식은 11월23일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선사(주지 밀운) 문도장으로 엄수했으며 49재는 98년 1월9일 보광사에서 봉행된다. 스님은 43년 서울 출생, 봉선사 총무·교무국장, 포천홍불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 9·10대 총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대만평

현대만평



불자들의 힘을 모아...

737-8881

거조암 영산전 중창 및 오백나한 좌대불사 회향 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정혜결사 도량이며 오백나한 기도영험도량인 팔공산 은혜사 거조암에서는 지난 2년여동안 불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보14호 영산전 중창 및 오백나한 좌대불사를 원만히 성취, 회향법회를 봉행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사에 수회 동참하여 주신 불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리며, 나한님 이운식에 동참하시어 업장소멸 오백나한님의 가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 오백나한님 이운식 : 불기 2541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 회향법회 : 불기 2541년 12월 14일(음력 11월 15일) 오전 11시
- 문 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번지 ☎(0563)35-1369

◆ 부산지역 교통안내 ◆

- 행사 기간중 매일 오전7시 아리랑 관광호텔 앞 → 7시 30분 동래 한양프리카 앞 출발
- 철야기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아리랑 호텔 앞 출발 (교통편 문의 ☎ (051)622-0181, 611-0181 (윤기사))



대한불교 조계종

오백나한 기도도량 거조암

주지 혜해 합장